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A 3-6	180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1주년 기념 자료집

1996

함께가자 우리도 길을

BUcheon FOREIGN WORKERS' HOUSE 발행인 : 임영담



개그맨 전유성이 예전에 잡지인터뷰 끝에 계좌번호 하나를 적어 놓고 그랬대요. 돈 천원씩만 보내주면 해외로 안 빼돌리고 잘 쓰겠다고. 그랬더니 진짜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나요. 일년이 지난 후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유성같이 돈 잘버는 사람한테 뭐하러 돈을 보냈을까요? 우리한테 줬더라면 더 잘 썼을 텐데.

외환은행 239-19-12240-4
 국민은행 202-24-0386-372
 농협 130012-56-005410
 주택은행 652302-93-112681
 우체국 104166-0061666 예금주 : 예영주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84-5 22/8
 Tel. 032-651-8351 Fax. 032-668-0077



421-112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84-5 22/8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 032-651-8351

외국인노동자와 한 해를 보내며

자그마한 이 공간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사랑을 담은 쉼터로 자리잡기까지 몇몇 뜻있는 분들의 지난한 노력과 격려가 뒷받침되었습니다. 석왕사 영담 스님, 여월동 성당 제정원 신부님등 물적, 정신적으로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과 병원은 엄두도 못내고 약으로만 참다가 골병이 든 채 찾아든 이들을 묵묵히 감싸 안으셨던 양요환 신천연합병원 원장님, 이 모든분들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고통에 지친 외국인노동자를 달래어 그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었습니다.

또한, 심장마비로 죽은 남편을 영안실 냉동보관소에 넣어두고서 돈이 없어 장례를 못 지내던 태국인의 딱한 사정을 보고 보관비를 감해 주시던 은혜병원 영안실 사장님, 장의비를 절감하도록 도와주신 영천장외사 사장님등 숨은 후원자들이 본 집을 사랑의 집으로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갖 가지 어려움에 시달려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인격까지도 불법인 듯이 여기는 눈초리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도 흔들리게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합법 비자를 소지한 연수생 처지가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편없는 저임금에 사생활을 규제당하며 노예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뿐만 그럴듯한 연수생제도의 허구를 벗기고 실제적인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각종 불협화음을 종식시키는 길입니다.

상당내용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관한 것입니다. 고의로 임금을 안주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작년 한해, 엄청나게 많은 영세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영세업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강도높은 노동이 전제되어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있어야 할 병원은 너무 멀기만 합니다. 몇 년을 애써 일하여 얼마간의 돈을 모은다 해도 지나친 노동으로 건강을 해쳐 병원비로 모두 날리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모른체 하고 넘어간다면 이미 실추된 한국의 이미지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전한 일꾼으로 자리잡은 이들이 동등한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합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임명길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이사장, 석왕사 주지)

세상 만물이 천차만별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근본에 있어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만물 간에 서로 의지하고 성립하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찮은 미물이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가벼이 여기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것이 만물의 상호관계성에 연유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 많은 인종이 여러 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인종마다 제각기 다른 제도와 언어, 풍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람의 본성에 있어 존엄하고 고귀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천진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존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물이 서로 관계되어 하나로 통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진실한 것이 원래의 도리인데 왜 세상은 대립과 차별, 갈등과 반목이 끊이질 않을까요. 그것은 분별심 때문이기도 하고 홀로 잘 돼 보겠다는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 속에 욕심과 분별심을 버리면 모두가 행복한데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니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고도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장미빛 꿈을 안고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 그들이 없으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야 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선진 외국에 나가 갖은 수모와 학대를 받아가면서 일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는 듯이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온 외국의 젊은 노동자들에게 인간적 멸시와 수모를 주고 경제적 피해까지 입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는 건악한 마음때문입니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그들이 주도한 명동성당 농성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큰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대는 하지 못할 망정 냉대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국가적 망신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그들이 이 땅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설립한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집을 찾아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함께 풀었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통하여 '하나'라는 진실을 같이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지난 1년을 보낸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로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 '모두가 하나'라는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첫돌을 축하합니다.

최정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명동성당 앞에서 13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추위에 떨면서 '때리지 마세요' '월급 주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를 외칠때는 보이지 않았던 일꾼들이 부천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소와 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네들이 미친 듯이 뛰어들어 일한 보람으로 이제는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가장 모범적인 상담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실무자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사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의 덕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 대책 협의회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이제 친구가 되어야 할 외국인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야기

90년 이후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던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관련 운동은 94년도 '외국인노동자피난처'의 김재오 소장이 경실련사무실에서 외노산재보상을 위한 농성을 벌임으로써 한 줄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 농성은 불법체류 외노라도 산재를 당하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 냈으며, 이미 귀국한 산재자에게도 3년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얻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노가 처음으로 부당한 대우에 반발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하여 성공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단결된 집단적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실제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 농성 이후 민주노총(준)을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 전노협 사무실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 후 네팔에서 온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이 저임금, 감금노동과 인력송출업체의 폭행 등을 견디다 못해 공장을 이탈하여 도움을 호소해오므로써 연수생에 대한 인권유린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게 되었다. 공동모임에서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력 수입정책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공청회와 항의집회 등을 통해 정부를 규탄했으나 정부나 중소기업 협동중앙회 측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 두번째 집단행동으로 산업기술 연수생들과 결합하여 95년 1월 명동성당 앞 텐트농성을 하였다. 이 실천적인 투쟁을 통해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 결과 36개 단체가 연대하여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를 결성하였다. 그 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히 사업을 하던 외노상담소 실무자들은 7월초 수련회를 거쳐 적극적인 상담활동과 연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 회장 김혜성,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을 결성하였다. 외노협은 상담실무를 담당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공대위에서 풀수 없는 구체적인 '외노운동'을 지향하는 운동체이다. 외노협에는 외노 자체 조직들도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외노문제를 노동운동의 방향으로 풀어가자 하는 외노협이 결성된 후 첫 사업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10월 공동행사'였다. 10월 한달 간 문제제기를 위한 기자회견, 공청회, 외국인노동자 문화 한마당, 민주노총 산하 노조조직들과 자매결연 등의 행사를 하였고 그 성과를 모아 민주노총창립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결합하였다.

96년에는 외노협의 규약을 제정하고, 상근 집행위원장을 선임하여 새로 이사한 민주노총사무실에 상근 공간을 확보하였다. 96

년도 중요사업으로는 '외국인노동자 보호법(가칭)' 제정, 언어·문화·법에 대한 교육 사업, 외노 조직 사업, 외노문제 분석 및 정책 연구 사업, 월간 '노동과 평등' 회보 발간, 아시아 지역 외노 관련 운동단체 실무자 세미나와 국제회의(8월중) 주최, 한국노동자와 친선교류행사 등이 있다.

외국인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외노문제는 기본적으로 저임금을 이용하여 이윤을 획득하려는 자본가의 이해때문에 발생한다. 만일 이 세상이 골고루 평등한 삶의 질을 갖고 산다면 어느 누가 고향을 떠나 낯선 타국 땅에서 차별당하며 일 하려고 하겠는가?

우리도 6,70년대에는 사우디와 독일로 잘 살아 보겠다는 꿈을 갖고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차별당하며 일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뿐이랴, 아직까지도 외국인력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은 입장에 있다. 필자도 74년 서독에 광부로 팔려갔다. 지하 천미터가 넘는 광산에서 40도의 뜨거운 열과 싸우며 생명을 걸고 일하면서도 내 조국이 어서 잘 살게 되기를 기원하며 울었던 가슴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20년전 나보다 더한 모습으로 외노가 내 조국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 그나마 인간적인 대우를 해 준 독일정부와 국민이 새삼스레 고맙다.

우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 땅에서 외노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유엔과 국제노동기구도 규약과 조약을 통해 인권과 노동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에도 그러한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를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귀면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이 세계평화로 가는 첫 걸음일 것이다.

자!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려 신나게 다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



95년 10월 25일 외국인 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95년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스리랑카 노동자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백선기 (부천연합회장, 본 집 운영위원)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국적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60년대 이래 독일과 중동 등지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새삼스럽기조차 합니다. 또한, 이는 민족적 자존의식에 비추어 봐도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대우에 항의했던 필리핀의 반한시위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나아가 이는 정부의 무원칙한 산업인력 수급 및 노동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산업기술 연수생이라는 허울을 씌운 채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수입정책을 철폐하여야 함은 물론 이미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소한 법적 대우(근기법의 적용)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문제의 한 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양심적이고 민족적인 각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좋은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점에서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대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관심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 들일 적당한 장과 계기를 만들지 못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심화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합법적인 제도는 형편없이 싼 임금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업체 이탈, 불법취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입과 단속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되풀이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응한 범시민적 운동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면서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문제와 인권신장을 향한 범 시민운동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마음 95년 4월 30일 외국인 노동자 문화한마당

- 95년 3월 13일 이사회 발족식
- 3월 31일 개소식
- 4월 30일 외국인노동자 문화한마당
- 5월 01일 노동절 행사 참가
- 5월 28일 태국인 위나이 볼붓(WINAI PULBUT) 씨 장례식
- 7월 01일 외국인과 함께한 수련회(2박 3일)
- 7월 29일 여름캠프(95 SUMMER CAMP '하나됨을 위하여')(1박 2일)
- 8월 13일 방글라데시 공동체 모임(초대 대통령 추모제)
- 9월 03일 석왕사 청년회 주최 '백중맞이 문화한마당' 참가
- 9월 09일 스리랑카인 모임(공동체 준비를 위한 첫 모임)
- 9월 12일 미얀마인 쇼몽소(ZAW NBME SOE) 씨 장례식
- 9월 15일 중국교포 최금철씨 장례식
- 9월 24일 스리랑카 공동체 결성을 위한 준비위 모임
- 9월 28일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JCMK) 주관 제도개선 청원 및 서명 운동, 외국인노동자 문화한마당개최 결의, 향후 사업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
- 10월 12일 네팔인 어닐 다칼(ANIL DHAKAL) 씨 장례식
- 10월 15일 스리랑카 공동체 발족식
- 10월 25일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10월공동행사 위원회 주최 기자회견 및 공청회
- 10월 29일 외국인노동자 문화 한마당 '하나됨을 위하여'
- 11월 01일 네팔인 나렌 타망(NAREN TAMANG) 씨 장례식
-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참가
-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참가
- 12월 03일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한 산행(수락산)
- 12월 10일 네팔노동자 공동체 전체 모임
- 12월 17일 방글라데시 노동자 공동체 모임
- 12월 24일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송년의 밤
- 96년 1월 1일 네팔인, 부천 지역 노동자 신년회
- 1월 28일 외국인노동자 공동체 간부 교육-외노협 주관 1차 교육
- 2월 2일 임시이사회 개최-사업 중간점검과 재정마련 검토
- 2월 3일 방글라데시 노동자 오스만씨 사인규명과 벌금제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 2월 11일 외국인노동자 공동체 간부 모임-96년도 사업검토
- 2월 18일 스리랑카 공동체 전체 모임

벌금

불법체류 외국인들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불법검문에 걸려 강제출국당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진출국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바쳐야 하는 벌금이다. 강제출국이야 제쳐두더라도, 이 놈의 벌금이 사람 잡는데 선 수도룩을 하고 있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 그 폐해를 들여다 보자.

오스만이라는 방글라데시 사람이 96년 1월 17일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장수산 기슭에서 목매단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근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건강한 사람이었다. 진상은 이렇다.

오스만은 죽기 며칠 전 아들이 사고로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결정했다. 공장장에게 부탁해서 비행기표 살 돈 50만원은 그럭저럭 마련했지만 문제는 벌금이었다. 인천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알아보니 벌금이 200만원 이란다. 어떻게 하면 벌금을 안내고 갈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기껏 생각해 낸 것이 강도극을 벌여서 강제출국 당하는 것이었다. 실제 이런 방법은 고전에 속하는 편이다. 칼을 들고 친구방을 찾아들어 적당히 쏘를 하다가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화장실을 통해 도망하려고 3층에서 뛰어 내렸는데 그만 출입구 지붕으로 떨어져 도로 잡히고 말았다. 그 후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보냈었는데 의사 눈을 슬쩍 피해 도망쳐 버렸다. 그런데 이튿날 이미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다.

후에 부검을 했는데 왜곡이 세도막으로 부러지고 갈비뼈가 하나 부러져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조사 중에 폭행이 있었는지 화장실에서 뛰어 내리다가 다친 것인지 확실치가 않지만 부검에 참가했던 의사의 의견으로는 떨어져서 생긴 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결국 오스만을 죽음까지 몰고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벌금 200만원인 것이다.

노영춘 씨는 중국 심양시의 가족에게 돌아가는데 울분과 함께 250만원을 내야 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한 전갈을 받고 단숨에 뛰어간 인천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벌금을 내놓든지 돌아갈 생각을 말든지 하라는 싸늘한 말만 내 뱉을 뿐 사람대접도 하지 않았다. 이 놈들이 같은 동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하는 분노가 가슴을 쥐어 뜯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다음날 다시 돈을 벌테니 보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앉으라며 의자를 내밀더라. 막상 돈을 지불하는 날도 노영춘씨의 급한 마음은 아랑곳없이 네 시간을 대기실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그는 대기실에 놓여진 긴 나무의자를 부여잡고 호느끼고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 자리잡았던 조국은 더 이상 조국이 아니었다.

중국계 미얀마인 홍금생 씨는 95년 6월 공장에서 산재를 당했다. 왼손 엄지손가락 하나만을 남기고 손바닥 중간까지 절단되는 큰 사고였다. 불행중 다행으로 산재보험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보험처리 중에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이 있었다. 이때 보험처리가 끝나는 대로 출국하겠다고 일단 신고를 하고 출입국관리소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두달 후 출국하겠다고 하자 관리소에서 하는 말이 상상 밖이었다. 신고기간 중 신고를 했더라도 지금은 기간이 끝났으니 회사와 본인 모두 규정대로 벌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규정대로라면 사업주는 500만원, 본인은 420만원 그야말로 장난이 아닌 금액이다. 더구나 홍금생 씨는 산재자였던 것이다. 회사에서 몇차례 진정서를 내고 두달여를 밀고 당긴 끝에 간신히 출국은 했는데 본인은 벌금면제, 회사는 250만원, 내국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력을 쓸 수밖에 없었던 영세기업 사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벌금을 내라는 것일까. 이렇게 저렇게 피를 빨아가면서 도대체 중소기업청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폭행

한 번은 전철을 타고 가는데 방글라데시인으로 보이는 외국인들 네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철에 오른 중년 이주머니가 다른 때 같으면 만만한 학생을 골라 그 앞에 섰으면 그 날은 외국인들 앞에 가서 턱 하니 버텼었다. 두세 정거장을 얼굴을 진득 찌푸린 채 서 있더니 입을 실룩실룩하며 내 뱉는 소리가 곱잡이다. -무식한 놈들, 위아래도 모르는 것들 같으니라고- 도대체 이 오만함이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그들이 백인이었어도 그럴 수 있었을까? 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이유는 대개 이런 것들이다. 미개한(?) 나라, 못사는 나라, 우리나라에 와서 막노동이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짚은 마음내키는 대로 욕하고 두들겨 때도 좋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95년 6월 18일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페리 인다르토 씨를 포함한 10명은 하루 종일 굵은 채 일을 해야 했다. 회사측의 무리한 특근 요구를 거절할 결과였다. 다음날 아침부터 허기져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버티며 작업을 거부했다. 그러자 담당과장과 다른 관리자들이 각목을 휘두르며 기속사로 몰려들어왔다. 관리자들과 맞붙어서 집단싸움을 벌였는데 양쪽다 부상당한 사람이 생기고 외국인 중 하나는 머리가 터져 여덟바늘을 꿰매게 되었다. 페리 씨 등은 공장에서 도망쳐 나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고 본 집을 찾아 왔다. 회사측과 협상을 해서 사내폭행 금지, 특근시간조정 등 다섯가지에 대해 합의하고 본인들과 의사절충을 해서 다시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관리자들과의 관계가 더욱 불편해져 모두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라나 씨는 95년 8월초 토요일 저녁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주말이라고 친구들 몇 명이 기속사로 놀러 왔길래 근처 호프집으로 맥주한잔 하자며 들어 갔다. 평소 자주 가던 곳이라 호프집 주인도 친했고, 인근 공장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가끔 본적이 있는 동네 청년 하나가 다가와 다짜고짜 -외국새끼가 우리동네에 와서 술을 쳐 먹는다 -며 욕설을 퍼붓더니, 라나씨를 끌고 나갔다. 길에 라나씨를 패대기 치고는 주먹과 발길질을 쏟아 부었다. 이유는 단 한가지, 외국인이 우리동네에서 술을 먹었다는 것. 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도록 두들겨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 모두 도망가 버리고 숨어서 지켜보던 칠순 할머니가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경찰차가 나타나자 강패는 도망쳐 버리고, 라나 씨는 피투성이가 되어 성가병원으로 옮겨졌다. 장이 영망으로 파열되어 끊어 내고 연결하고 봉합하고... 사건 며칠 후 연락을 받고 추적해 보니 강패의 집엔 단칸방에 병든 아버지만 누워있고 노모는 일당치기로 발일을 나갔단다. 합의는 커녕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지도 못하고 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병원비였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해 470여만원이 넘게 나온데다 종합병원이라 하루하루 쌓이는 병원비가 눈덩이 불어나듯 했다. 라나 씨 일하던 회사의 사장님은 양심적이고 소박한 분이었는데, 엄청난 병원비에 한숨만 내 쉴 뿐이었다. 기해자로부터 병원비를 받기는 애초에 틀렸고, 병원측에 며칠을 간절히 요청을 한 결과 22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사장님도 고마워하며 퇴원수속을 했다. 3년동안 한지붕아래서 성실하게 일했던 라나 씨가 가족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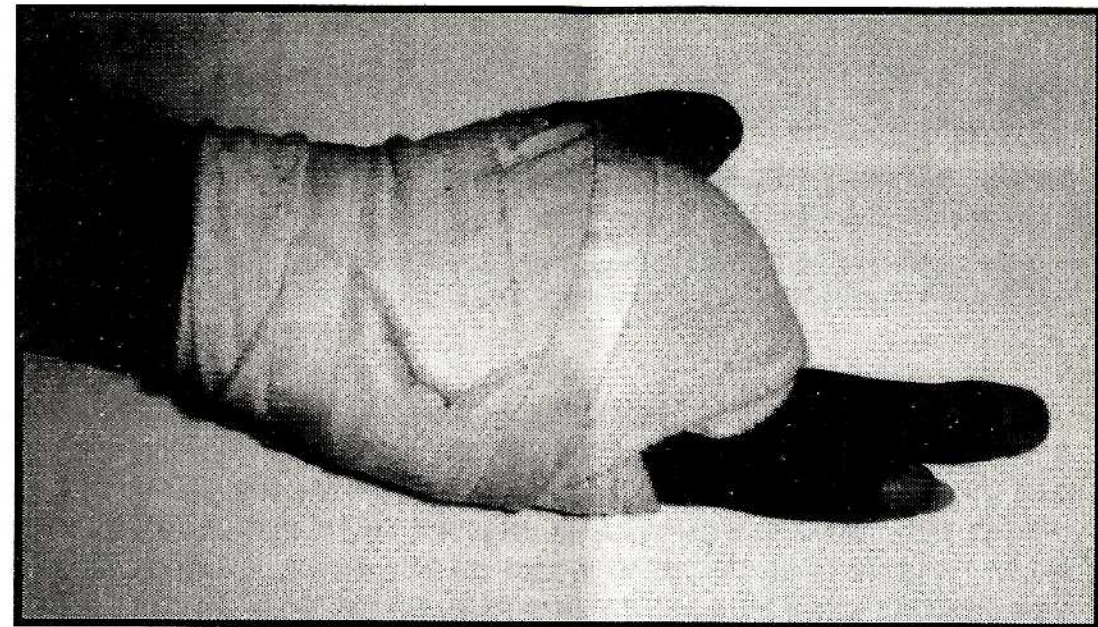
산업재해

작년 산업재해율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기양양했다. 산업재해율 0.99%로 사상처음으로 1%미만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재해만을 포함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산재가 1% 미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모이면 농담삼아 우리들의 잘린 손가락을 다 모으면 한가마니가 넘을 것이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한가마니를 채우는 손가락 중 제대로 산재보상보험의 보상을 받은 손가락은 과연 몇 개나 될까.

살람 씨는 마흔이 조금 넘었는데 얼핏보면 노인네로 착각할 만큼 곱슬곱슬한 피부로 지난 날의 고생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그는 95년 11월부터 광명시에 있는 목재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첫날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재빨리 빼낸 팔끝에는 멍그리진 살덩이가 달려있을 뿐 손가락은 흔적도 없었다. 두달 후에 상담차 우리 사무실을 찾아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치료된 상태였는데도 들여다보기가 심기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았다. 손가락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철심을 박아 넣었는데 푸르딩딩하게 썩은 고구마에 여기저기 쇠젓가락을 꽂아 놓은 것 처럼 보였다. 워낙 심하게 멍그려져서 그나마 원형을 살려낸 것이 다행이라고 한다. 물론 그 목재소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었다. 사업주가 비싼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후 가입이라도 할 요량으로 병원측에 외국인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를 물으니까 안된다고 대답하더라. 병원에서 불법체류노동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건만 진료비를 더 받을 욕심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사업주도 자신이 큰 돈을 들여 치료까지 해주었는데 '의리없이' 상담소에 찾아왔다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였다. 상담이고 협상이고는 안중에도 없고 욕하고 삿대질 하기에 바쁜 그를 설득하여 산재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가누 라이 씨는 작년 10월에 있었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에 본국으로 돌아 가려고 인천출입국관리소를 세번이나 찾아 갔다. 관리소에서는 세 번을 다 다음에 와서 찾아 가라며 여권을 내주지 않았다. 그는 세 번째도 실패하고 나 오면서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 다음날로 예산에 있는 비닐꾼 제조 회사로 일하러 갔는데 보름만에 기계 속으로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뼈는 상하지 않았지만 흰뼈 위로 붙어 있어야 할 살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나중에 배의 살을 이식해서 흉한 하지만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라이씨의 경우는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적용받기까지 과정이 또 이야깃거리다. 여권은 관리소에 넘어 가 있고 본인이 소지한 사본도 없었기 때문에 라이 씨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하나도 없었다. 관리소에 산재처리 때문에 그러니 사본이라도 하나 달라고 사정을 하니 그 담당자 하는 말이 걸작이다. 원본이고 사본이고를 내주고 나면 산재자와 사업주에게 '규정대로' 벌금을 청구해야 하나까 보험으로 처리하지 말고 적당히 내보내 버리란다. 다행히 산재사고가 많지 않은 지방이라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가 약간 어리숙한 바람에 거짓말로 슬쩍 넘어가고 나중에 보원을 해 주었다.

닉켈 씨는 한달 월급 200달러짜리 연수생이었다. 물론 200달러에는 잔업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으며하루 세끼 식대로 받던 1400원은 항상 허기지는 금액이었지만, 그를 포함한 연수생 20명은 버티는데 까지 버티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러던 중 95년 7월 기숙사 유리문이 깨지면서 닉켈 씨의 팔로 유리가 쏟아져 심한 상처를 입었다.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며칠을 입원치료 시킨 후 서둘러 퇴원조치 시켰다. 그 후로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회사에서는 일체 병원비를 주지 않아 몇 번을 자비로 해결하다가 그만 두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처를 그냥 내버려두는 바람에 아물지 않자 본 집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연수생 20명의 대표격인 4명과 상담하여 직접 회사와 협상을 하도록 설득했다.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연수생이라도 최저임금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으니 정당하게 요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외부에 회사 내 상황을 알렸다면 연수생 전체를 불러 억박지르고 바로 다음날 닉켈을 본국으로 보내버렸다. 정부는 연수생에게도 최저임금법과 산재보험법, 의료보험법 등을 적용시키겠다고 공언을 하지만 무척 바쁜 탓인지 아니면 일부러인지 현장관리감독에는 신경을 못쓰고 있다.



내 손가락 돌리도!

1년간 상담 건수

상담의뢰 내용	인 원	국 적	인 원
1. 임금체불	280	1. 네팔	533
2. 산재	80	2. 방글라데시	240
3. 폭행	28	3. 스리랑카	250
4. 의료	120	4. 인도네시아	40
5. 송금	45	5. 파키스탄	50
6. 출입국	95	6. 이란	15
7. 사망	8	7. 미얀마	80
8. 구직	174	8. 베트남	8
9. 숙식(환자/이동)	400	9. 중국교포	12
10. 기타	50	10. 나이지리아	17
		11. 필리핀	35
합 계	1280	합 계	1280

사망

오늘도 탁자위에 유골상자를 올려 놓은 채 그 옆에서 밥을 먹는다. 별달리 치위돌 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저 사람도 배고플 텐데 우리만 먹어서 미안하네.. 농담도 하면서. 처음에는 유골상자를 보기만 해도 메스꺼움이 피어오르더니 이젠 사무실 소품이 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너무도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죽음을 맞는다. 강도를 만나서, 사고로, 병으로 또는 비관자살로... 그들은 체류에 합법과 불법의 구분이 없는 영혼이 되어 국경을 넘어 가족을 찾아간다.

위나이 불붓은 잠자던 중 갑작스런 가슴통증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인을 알아본 결과 청장년급사증후군(특별한 사인없이 돌연 사망)이었다. 잠자기 전 다이몬이라는 말초혈액순환촉진제와 태국제 알약을 먹었으나 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그는 한국에서 같은 나라 처녀 지암을 만나 혼인하였지만 호적에는 올리지도 못했다. 그의 아내 지암은 숨넘어가도록 아픈 남편을 병원에 보낸 후에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어느 병원에 있는지 시신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들 부부는 버려진 창고에 자리를 깔고 다른 태국인 여섯명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모두 한국말을 몰라 어찌 알아 볼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본 집에서 내용을 전해 듣고 태국대사관에 협조요청을 했을 때 대사관은 자국민의 죽음을 애도하기는 커녕 불법체류를 해서 나라망신을 시킨다며 장례비용은 일체 도와줄 수 없다고 내몰았다. 후에 한 복지재단에서 가족위로금으로 6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지암이 정식처가 아니라며 중간에서 가로채는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 태국 국민은 대사관이 당연히 자신들 편인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푸대접에 서럽기만 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 준 것은 같은 불법체류자 신세인 내팔노동자들과 장례까지 위나이 씨의 시신을 보관했던 은혜병원 영안실 사무장이었다. 은혜병원 영안실 사무장님께는 지면을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두달 가까이 누적된 영안실 보관료 때문에 자칫하면 장례를 치르지 못할 뻔 했으나 사무장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최금철 씨는 95년 7월 3일 입국하여 한달을 바닷 넘기고 8월 15일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그는 억척같이 벌어서 고향의 대식구를 먹여 살리고 한국에 올 때 빌린 엄청난 빚도 갚아야 한다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는 5층에서 떨어져 죽사 했는데 현장에는 위험표지판, 안전대, 그물망 등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떨어져서 죽도록 일부러 방치한 것 같았다. 회사에서는 그의 신분이 중국교포로 밝혀지자 곧바로 외국인 운운하며 몇백만원의 장례비 겸 위로금으로 종결하려 들었다. 산재처리도 하지 않고 일괄협상만을 주장하면서 유족들을 애먹이다가 본 집이 협상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45천만원의 금액을 제시했다. 최금철씨의 경우 하루 평균임금이 57,000원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8,000만원이 넘는데도 말이다. 유족들은 사고가 난 지 한달이 가까와 오자 직접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을 방문하여 속히 산재처리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회사와 중부경찰서에서는 협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유족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 형님을 두번 죽게 할 수 없다. 한국인과 똑같이 해 달라. 한국인의 죽음과 교포의 죽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유족들의 굳은 뜻이 끝내 관철되어 9000만원에 합의가 보았다. 장례식날 유족들은 최금철씨의 마지막 길을 오염하며 뒤따랐다.

로날도 알바레즈 씨는 96년 1월 10일 새벽 기숙사에서 잠자던 중 화재로 숨졌다. 필리핀인 친구 세 사람과 같이 부천 도당동의 한 완구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사고나기 전날 저녁에도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집에 가는 꿈을 꾸겠다고 잠 들었다. 새벽 3시경 1층 계단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불은 플라스틱 장난감과 카펫을 태우며 유독 가스를 피워 올렸다. 3층에 있던 기숙사에는 4명이 잠들어 있었는데 먼저 냄새를 맡고 깨어난 노엘이 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열자 화기와 유독가스가 새어 들어 왔다. 불이 난 것을 알아차린 노엘은 친구들을 깨워서 창문으로 뛰어 내렸으나 깊이 잠들었던 로날도만은 그냥 남겨 둘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잠이 깬 로날도는 계단을 통해 빠져 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현관문을 요양에 두고 질식해서 쓰러진 그는 내장이 다 터져 나온 채 새까맣게 타서 숨져 있었다. 아마도 꿈 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느라고 잠을 깰 수 없었던가 보다.



죽어야 자유로운 세상 - 최금철 씨 장례식에서

의료

높기만 하던 병원문턱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그나마 서민들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도록 낮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비싼 진료비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부류가 있으니 그 이름하여 외국인노동자다. 병원에서 한 두번 치료하고 한달 월급을 몽땅 날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니 말이다. 조기에 발견하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진료비 문제나 혹은 언어소통 문제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료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디푸 씨는 1993년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만 3년 가까이 일한 성실한 청년이다. 일년쯤 전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는데 차츰 심해져 거동조차도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상담소에 도움요청을 해 왔을 때는 이미 결핵성 척추염이 악화되어 척추뼈 2개가 절반 정도씩 썩어 버린 후였다. 신천연합병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1월 4일 골반뼈를 잘라서 척추에 이식하는 대수술을 했다. 현재는 이식한 뼈가 잘 고정되도록 허리를 고정시켜 두었는데 한달 쯤 후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빠른 편이다. 친구들이 대소변을 받아내거나 사랑을 쏟아 간호한 덕택이다. 그러나 아직도 300만원이 넘게 남아있는 진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랄 바하두르 뿐 씨는 94년 11월 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 왔다. 같은 해 12월 말, 허리 통증이 심해 검사를 받았더니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무리한 작업을 시켰고 허리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 도저히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뿐 씨는 회사에 휴식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고 급기야는 짐을 꾸려 도망나오기에 이르렀다. 본 집에서는 즉시 회사에 상황 설명을 하고 산재적용을 위한 요양신청서 접수를 요청했으나 산재적용은 커녕 연수생의 경우 당연히 의료보험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가입시켜 주지 않았다. 그 부당함을 회사측에 항의했으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치료비는 차후 강구키로 하고 신천연합병원의 협조를 받아 수술에 들어 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친구들의 정성어린 모금과 양요환 원장님의 진료비 삭감에 도움입어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현재는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95년 3월부터 연수생도 의료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혜택을 못받고 있다.

임금체불

임금이 체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중소기업체의 경영악화다. 개중에 악의적인 체불도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많은 경우는 아니다. 몇달에서 몇년씩 월급받기를 미루며 일을 해 주고도 업체가 부도나서 넘어져 버리면 어디가서 하소연 할데도 없다. 상담소에 와서 울며불며 매달려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하다.

인드라 씨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고려인삼공장에서 8개월 일하는 동안 한번도 월급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사장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도무지 줄 생각을 안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사장은 자신에게 통보없이 그만둔 것을 트집잡아 밀린 월급주기를 미루고 있었다. 본 집에서 인드라 씨와 같이 사업주를 만났을 때도 차마 입에 못담을 욕설을 퍼붓는 등 뉘우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보니 한국인들에게도 월급을 고의적으로 주지 않아 몇번 고발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노동부에서 호출하자 밀린 월급이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근 1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억지쓰며 한푼이라도 덜 주기위해 애썼다. 담당 근로감독관 또한 그냥 내버려 뒀도 좋을 외국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들이기가 귀찮으니까 대강 처리하려는 눈치를 보이지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고팔 씨는 얼굴에 드리운 근심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사람이다. 한국에 온지 3년, 이젠 한국말을 하고 한국음식을 먹는데 자연스러움이 배어 여유롭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국이 지긋지긋하여 당장 떠나고 싶은, 하지만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이다. 그는 2년간을 돈 한푼도 못 벌고 허송세월로 보냈다. 그렇다고 놀고 먹으면서 그리된 것은 아니다. 남들 못지않게 뼈빠지게 일하고도 그 모양이다. 내용인즉 이렇다. 친구 소개로 야외용 버너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원장이 부도나는 바람에 몇 달치 월급을 밀린 채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사장님이 다른 버너공장에 취직을 시켜준다. 그런데 그 회사도 몇 달후에 연쇄부도로 차일피일 미루던 월급을 못 받고 그만둔다. 바로 옆에 있는 회사에서 손질을 해 가보니 거기도 비슷한 버너를 만든다. 또 몇 달을 그럭저럭 일하는데 얼마 지나자 월급이 안 나온다. 알고보니 부도로 문을 닫는단다. 이런 식으로 2년간 여섯 개 회사를 전전했는데 모두 원청 하나에 서로 거래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줄줄이 부도로 망해 버렸다. 고팔 씨는 운이 없게도 부도나는 차례대로 회사를 옮겨다니며 월급을 떼인 것이다. 고팔 씨는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스리니와사 하므두르(해천스님)

오명가게에서 있었던 일

한 번은 오명 몇 개를 사러 포장마차에 들어갔는데 두 소년이 무엇인가를 먹고 있었다. 나는 꼬맹이 여주인에게 천원을 내고 오명 다섯 개를 싸달라고 했다. 내가 보기엔 두 소년은 오명가게의 소녀와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 조금 후에 소년들이 좀 더 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꼬마 주인은 - 너희들이 이 스님처럼 돈을 내고 달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하지만 공짜로 달라면 더 이상은 안돼 - 하고 딱 잘라 버렸다. 그러자 동생인 듯한 소년이 - 배고파, 배고파, 난 배고프단 말이야 - 소리치며 졸라댔다. 이쯤되자 꼬마 주인이 못 참겠다는 듯이 쓰아부쳤다. - 너희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 - 어허, 그 어린 소녀는 벌써 '세계화'의 참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작년에 한 불법체류 노동자가 죽어서 친구들이 모여 부평화장터에서 장례를 지내게 되었다. 운구차가 화장터에 도착하여 모두들 버스에서 내렸는데 버스 기사가 우리중에 누가 한국말을 할 줄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을 하자 그는 -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요? -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당혹스럽기도 했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가 팁을 달라는 말을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전기사가 관을 안전하게 운반해 준 것에 대해 웃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아마도 그는 '세계화'보다는 '지방화'가 더 좋았던 모양이다.

현명한 소년

한때 창원시에 있는 절에서 지냈던 적이 있다. 거기서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오래된 암자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날따라 비가 내렸다. 도착해서 이곳 저곳을 둘러 본 후 안으로 들어갔는데 두 소년만 동그마니 앉아 있었다. 형제같았는데 형은 열다섯살쯤, 동생은 열살이 조금 넘어 보였다. 주지스님은 잠깐 외출하셨노라고 내게 알려 주었다. 동생으로 보이는 녀석이 호기심어린 눈으로 줄곧 나를 바라보다니 제 형에게 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연신 묻는 눈치였다. 내내 잠자코 있던 형은 마침내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동생을 타일렀다. - 저 분이 우리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저 분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 그 어린소년의 명철함이 무척 인상 깊었다.

천국과 지옥

한 번은 한국인 노스님 한분을 모시고 일본에 간 적이 있다. 노스님은 관광이 목적이었지만 나는 공부하러 갔던 차였다. 우리는 부산에서 저녁에 떠나는 페리호를 타고 다음날 아침에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다. 노스님은 초중고등학교를 일본인 선생 밑에서 공부하고 연세대에서 수학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승려의 길로 들어섰는데 일본을 무척 좋아하는 편이어서 어떤 때는 열광적으로 일본을 찬양하기도 했다. 일본에 도착해서 몇시간쯤 후에 자신의 일본에 대한 감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

얼마 후에 그 노스님과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게 되었다. 한 일주일쯤을 힘겹게 여행한 끝에 노스님이 병을 얻었다. 그는 인도가 너무 지저분하고 불편하다며 어떤 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가 인도에 대한 느낌을 몇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기를 - 이게 바로 지옥이야 -

그러나 천국이든 지옥이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588-2번 버스와 한 소년

나는 여학당에 오갈 때 588-2번 버스를 자주 이용했는데 저녁때 쯤이면 항상 만원을 이루곤 했다. 가끔은 서울에서 부천까지 오는 동안 줄곧 서 있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기라도 할라치면 누군가가 쩌째게 자리에 앉아 버리곤 하는 바람에 내가 자리를 차지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런데 열다섯살 가량 된 한 소년이 내게 자리 잡는 법을 알려주었다. 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리려고 하나까 - 스님 양보하지 마세요. 여기 앉으세요. - 속삭이며 나를 살짝 밀어 앉혔다. 그 소년은 오랫동안 서있어서 피곤해 보이는 외국스님을 도와주는 것은 무척 좋은 일이라고 여겼던가 보다. 나는 지금도 그의 친절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정말 헛갈려요

저건넌 올리

한국분들은 저를 만나면 누구나 한국말을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속 웃거든요. 그럼 이만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하하 이건 농담이구요. 한국에 온 지 4년이 넘었으니 지금이야 그럭저럭 한국말을 하는 편이지만 처음에는 무척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힘든 만큼 재미있는 일도 많았지요. 특히, 한국어와 네 팔어에는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말들이 많거든요. 제가 몇가지 소개할테니 한번 보세요.

한국에 온지 며칠 안됐을 때인데 사장님이라 같이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났을 무렵에 사장님은 -가 가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 어? 우리 사장님이 네팔말을 어떻게 알지? 그런데 다 먹었는데 뭘 또 먹으라는 거야? - 생각하며 상을 훑어 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한참을 머리동결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나구요? 네팔말로 -가 가는 먹어, 먹어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헛갈렸던게 이해가 가지요?

언젠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아기를 안고기던 엄마가 -맘마 먹으러 가자 라고 하더라구요. -이크 외삼촌을 먹자구? 놀라운 세상 이군. 나중에 알고보니 맘마는 아기를 밥이라면서요.

한국친구를 만났는데 동생이라 같이 나왔더라구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인사해. 우리 막내야 -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거 한국사람들 안되겠구만. 막 한국말을 신나게 배울때 였는데 말 중간중간 섞인 단어를 네팔말과 혼동해서 자꾸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막내'라는 말은 '거지'를 뜻하거든요.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양말을 사러가서 -이저씨 모자주세요 - 하니까 이저씨가 피식 웃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양말을 모자하고 혼동하는 모양이구면, 생각을 하시고는 -이가는 모자가 아니라 양말이라고 하는 겁니다-하고 가르쳐 주더라는 군요. 그때서야 이 친구는 아차 싶었대요. 우리 네팔에서는 양말을 '모자'라고 하거든요.

어때요. 재미있지 않아요?

유토피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영주 사무국장

사람만큼 많은 각기 다른 군상이 공존하는 복잡한 동물이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나는 본집이 문을 열기까지 전혀 새로운 문제로 나의 고민을 가중시키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인간이며 같은 품을 팔아 세끼 밥을 먹기는 마찬가지이리라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의 여타 노동자들이 안고있는 노동의 문제속에 이방인으로서 겪게될 경외감 정도일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고 이틀째 되는날 의뢰가 벌써 사망사건으로 다가왔을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인은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부인이 있었으나 한밤중에 형사들이 어느병원으로 신고 갔는지도 모른채 냇이 나간채 한달을 넘게 울며 보내고 있었다. 가족의 의사와 슬픔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장례와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책임추궁이 두려워 사장은 도망을 다녔고, 담당 형사는 사장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심장마비이므로 자연사라는 것)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았다.애가 끊는 사람은 가족인 부인과 친구들, 시신이 안치된 병원 영안실 사장이었다. 땅만 파고 뚫구린 배를 움켜쥐고 일만하던 태국의 촌사람들이라보니 한국에 와서 몇년이 흘렀어도 제대로 의사소통도 되지않았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처럼 고학력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태국의 대사관에 협조를 몇차례 의뢰하였으나 불법체류자임을 강조하며 장의비는 한푼도 도와줄수 없으며 오히려 '이런사람들이 나라방산-태국-시킨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자국민이 과로로 죽었는데, 더군다나 만리타향 외국에서 졸지에 귀신이 되었는데 소위 영사라는 사람 입에서 눈하나 깜짝 안하며 못사는 자국민을 감추어야할 치부로 매도하고 있었다. 어느나라나 관료의 부패는 일반국민의 가난을 부채질하며 자신의 복마전을 키우는데서 그 정도가 깊어진다. 이들의 협조는 아예 포기하고 병원과 주위의 협조로 무사히 장례를 마치고, 한 복지재단의 협조로 유족에게 약간의 위로금을 보낼수 있었다.

방글라데시 고팔씨의 경우는 2년동안 단 한달치의 급여만을 만져 보았고, 인드라씨의 경우는 8개월 동안 한번도 월급을 만져보지도 못했다. 술취한 동태 캄에게 장파열에 과도한 출혈로 생명까지 위협했던 라나씨, 한밤중 귀가 도중 금품요구에 돈이 없으며 야구 방망이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스시라씨, 일요일 특근을 안해 집단으로 하루를 꼬박 굶겨 패싸움을 벌였던 인도네시아 친구들등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이 상황의 단초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리고 그 해결의 실마리는...?

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항상 - 제도와 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에 - 민간차원의 자발적 움직임과 피나는 노고가 선행되었다. 한국의 잘못된 노동시장의 수급관계가 국민들의 마음의 준비나 정부차원의 제도적 보완 장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즉,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일단 필요하니까 쓰고 보자' 식으로 진행된 것이 근7-8년이 된 것이다. 1-2년이 지나고 장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4-5년이 되자 공급의 안정 필요성과 사회적 여론의 비등으로 외국 인력의 정착을 소위 산업기술연수생이란 방식으로 제도화 (아직도 저임금에 바탕을 둔 6-70년대식 방식에 근거하여)하고, 인권 보장과 짙혔던 노동의 권리 회복을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또한 6-70년대식 노조탄압의 방법으로 강압적인 대응을 서슴치 않고 있다. (연수생의 집단 요구는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무시되고 있으며, 개인의 의견은 개인적인 반발로 치부되어 강제출국이 기다린다)

강압과 부당한 대우에 반발하여 불법체류자로의 생활을 택하는 이들, 합법비자가 없어 짜기는 신세일 망정 일자리를 찾아 이 험난한 한국의 노동시장으로 파고드는 사람들, 이들 모두는 한국의 경제상황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양 수레바퀴에 가장 기본적인 기름칠을 맡은 '무시할수 없는' 소외계층이다.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가장 쉽게 떠오르는 대답은 당연히 자유로운 노동의 권리, 마음놓고 일자리를 내손으로 골라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땀땀하게 일하는 것이리라. 개인적인 결함이나 근면하지 못함에서 오는 차이는 오히려 자유로운 공장 이전이 전제된 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밤그릇 싸움'등의 오히려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도입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의 우려라는 잘못된 공식)

둘째, 인권의 존중, 기본권의 보장일 것이다. 타국으로 돈벌이를 왔을 때는 웬만큼 무시당하고 천대받아도 될 것이라는 억측(돈벌이가 최우선이므로)은 분명 오산이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기에 부에 의한 인격적 무게도 달리지 않는 않기 때문이다. 중동과 베트남에서의 아픈 기억이 역으로 이들에게 동일하게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돈의 무게로 인격의 무게를 가늠하는 저질의 '자본주의적 인간평가'수준을 탈피하여야 한다.

셋째, 다민족, 다문화가 허용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이제는 많이 유희되기를 바랄 것이다. 인간과의 우정과 사랑이 국경 혹은 종교적 차이에 의해 제도적, 법적으로 강제된다면 그만큼 확실성이 인간 중심의 근본 진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리라. 국적이 다른 부모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사생이라는 불운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 이 또한 인간에 의한 또다른 악행이라 아 니할 수 없다.

이 모든 소망이 그리도 멀고 험난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일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제도적 모순에 의한 인간에 가해지는 악행은 당사자 뿐만이 아닌 주변의 침묵하는 방관자들의 피할 수 없는 과제, 동일한 비인간화의 수렁인 것이다. 작지만 한 목소리로 출발할 수 있는 인간애가 전제되어야 하며 인종적 편견과 빈부에 의한 인간 편가르기, 현대판 계급사회 조장은 이 땅에서 근절되어야 한다. 마음 편하게, 짜가지 않고, 욕설 들어가지 않으며, 공장도 나의 선택으로 정할 수 있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요구할 수 있는 너무도 당연하고 작은 소망이 이들의 최소한이며 전부일 수 있는 절실한 소망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6-70년대 식 한국정부와 노동자들의 관계가 새삼 이들의 상황과 너무도 비슷하게 교차하는 것은 왜일까.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인종과 종교가 다름에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는 그 근처에 너무도 같은 상황이, 자본의 변함없는 입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고부가가치의 생산보다는 저임금에 근간한, 인간존중의 패턴보다는 강제되고 강요된, 필요할 때와 불필요할 때의 선택과 기준은 언제나 자본측에, 자기 주장과 요구는 철저히 금기시 되어야 하는 등등의 상황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재판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결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 의한 차별을 거부하며, 제도의 인간중심적 개선을 소망하며, 피부와 국적에 의한 냉대와 가난이 인격마저도 도매 가격에 팔아 넘기는 살벌한 사회를 지양하고, 따뜻한 숨결과 아름다운 웃음이 인간 사회의 고된 노동도 잊게 해 주는, 훈훈한 정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힘든 공장의 업무보다도 인간에 의한 상처가 이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향수를 더 더욱 불러 일으킨다.

'대동세상'의 의미를 우리는 새삼 재음미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책없는 사랑에 대하여

이린주

내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저 무덤덤했을 뿐이다. 허필이면 타국에 와서 자살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피곤하게 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한심스럽기도 했다. 그 다음날 영자신문에 -한 네팔청년 실연으로 자살-이라는 짜투리 기사가 실렸다. 그저 흔하디 흔한 자살사건. 이유는 실연. 상대는 한국여자. 여자쪽 부모의 결혼반대로 헤어진 뒤 자살한 이국청년. 말 그대로 흔한 기사 몇 줄.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이 '외국인노동자'라는 것 뿐.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스물셋 앓된 나이, 본국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야말로 잘 생기고 똑똑한 청년이 삶을 저버렸는데. 그가 사랑했던 사람은 네 살이나 연상인 '미나'라는 상냥한 사람이었다. 그의 누나에게서 온 편지에도 사진 속의 미나가 사랑스러워 보인다. 느니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본국의 가족들도 그들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듯 했다. 그들은 다른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틈 나는대로 만나고 같이 여행도 다니는 행복한 생활을 했다. 나는 유품으로 남아있던 사진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엿보고 그 아픔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렌은 엉겁하게도 실제 나이보다 다섯 살이나 올려 미나에게서 오빠 소리를 들었던가 보다. 그가 일하던 회사의 나이많은 사장님은 우리 막내아들 삼았었는데 이게 웬일이냐며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직원들 말에 의하면 미나와 헤어지고 나서 한참을 났간 사람처럼 살았다고 한다. 그 명랑하던 청년이 다른 사람들 만나기를 무서워하고 일 부러 남들 싫어하는 야근을 자청해서 숨듯이 지냈다고 한다. 심지어는 어떻게 자살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고민했다고 하니 그 참담하게 무너졌을 가슴이 안스럽기만 하다.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는 경찰발표와는 차이가 좀 있었다. 미나는 나렌과 결혼을 할 경우 닥칠 상황이 두려웠다는 것이다. 앞날을 예견할 수 없던 사랑을 얼마나 망설이고 망설였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눈물을 쏟아냈다.

팔부갓집이라는 TV드라마에 한국여자와 독일남자의 결혼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다. 그 드라마에서는 국제결혼이 단지 한 개인과 가족이 결정만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성사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실재는 엄청난 시련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그 외국인의 국적이 잘사는 나라가 아닌 돈없는 나라, 힘없는 나라일 경우에는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들이 혼인하여 한국에 살게 된다면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법부부가 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로 평생을 쪼저다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강제추방의 위협에 시달리고, 아이가 생겨도 무국적자가 되는 그런 결혼생활. 미나의 판단은 어찌보면 현명한지도 모르겠다. 아속하지만 사랑만으론 살 수 없는 것이 세상 아닌가. 다만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나렌의 순애보가 안타까울 뿐이다.

얼마전 SBS에서 불법체류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을 소재삼아 방송을 한 적이 있었다. 방송국에서 소재가 생소하기도 하고 자료가 부족하니 우리에게 협조요청을 해 와서 그런 부부들을 찾아내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했다. 그때 한 결같이 하는 말이 만약에 그렇게 TV에 소개되었다가 얼굴이 알려져서 덜컥 붙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내가 붙잡혀 가면 우리 아내와 아기는 누가 보살피겠느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러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질 않던가. 최근들어서는 그런 부부들을 한쌍한쌍 모아서 같이 힘을 모으도록 부추기고 있다. 서로 아픔을 나누고 정보교환도 할 겸, 또 완고한 인종편견을 자랑삼는 한국사회에 찢러 넣을 창을 더 날카롭게 갈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운동의 현황과 과제

윤우현 (민주노동 정책부국장)

1. 외국인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보호대책을 논하기 이전에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기중심적이고 편향적인 시각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누가 그들을 끊임없이 한국으로 혹은, 자본강대국들로 이동하게 만들었는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이동행렬의 구조적 배경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제3세계와 자본강대국의 경제격차와 그에 따른 임금격차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 이면에는 제3세계에 대한 자본강대국들의 '저개발의 개발'에 따른 국제적인 산업예비군의 대량생산의 과정, 다국적기업에 의한 종속, 막대한 초과이익의 수탈이 은폐되어 있다. 그 결과로 파생된 빈곤과 저개발, 막대한 외채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제3세계의 문제가 주로 자본강대국들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얼마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국제회담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남북문제 (제3세계의 빈곤 등)이며, 자본강대국들도 형식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7천만명(유럽 약 2천만명: 독일 650만, 프랑스 350만, 영국 250만, 스위스 100만, 벨기에 100만 등)의 사람들이 취업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매년 3천 8백만명의 노동력이 증가하여 이미 존재하는 7억의 실업자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World of Work, N.3, ILO, 1993). 예를들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보아도 80-90년 기간에 방글라데시에서는 759,000명, 필리핀에서는 4,554,100명, 터키에서는 506,300명이 일자리를 찾으러 해외로 나갔다. 이들의 이동행렬은 주로 공식적인 경로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것이든 이른바 개발도상국에서 유럽, 미국 등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를 향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매년 10만명 이상의 아시아계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있고, 1992년 1백만명에 달하는 멕시코인들이 국경을 넘다가 미국경비대에 체포되었다. 1992년 현재 일본에는 아시아로부터 30만명(그중 한국인이 5만-7만명)에 달하는 소위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와 있고, 미국에도 현재 제3세계로부터 온 300만명에 달하는 비합법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각국의 교포라고 할 수 있는 귀환 인력의 대오도 결코 만만치 않다. (일본 15만, 독일 20만 등)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국제적인 이동행렬은 우리나라 자본을 포함한 세계적인 자본운동의 산물이다. 국제적인 자본운동이 이들을 세계 노동시장으로 배출한 것이다. 그들은 구미, 일본 등 자본강대국들의 다국적 기업 특히 제조업부문의 직접투자가 제3세계의 농촌과 전통사회를 분해시키면서 이들 제3세계 나라에 형성시킨 산업프롤레타리아들이며, 이들 나라에서 산업프롤레타리아는 계속 늘어나지만 일자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국제화된 지금의 세계에서는 결코 그 나라 자본만을 위한 산업예비군이 아니다. 오히려 외국자본을 위한 산업예비군으로 양성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선진국 드림'에 젖어 돈벌이를 찾아 나선 불청객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따라서 엄밀하게 말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공급자이자 수요자는 자본강대국과 다국적기업들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채권자이자 손님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기본전제로 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아직 이들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편향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된다. 무조건 '몰아내야 한다'는 시각과

무책임하게 불러들여 '활용하고 보자'는 시각이 그 양편향에 해당된다. 아울러 시혜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생각, 원하지도 않는데 그들 스스로 돈 벌 욕심으로 밀려들어 왔다거나, 경제적인 활용가치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따지는 등의 경향도 마찬가지로 있다.

2.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외국인노동자문제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한해 동안 출국자(취업, 이민, 유학연수 포함)가 40만명, 외국인 입국자(취업, 기술지도, 유학연수 포함)는 2만5천명이었다. 이는 국제노동시장에서 한국이 여전히 노동자 수출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국제적(ILO)으로 아직까지 인력 수출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ILO 등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정부와 노동조합이 해외로 나가는 한국노동자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과연 그렇다. 취업, 이민 노동자만해도 한해 20만명씩 내보내는 국가에서 그들의 차별노동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들에 대한 보호를 언급한다치더라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노동 정책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타국에 차별철폐를 요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다. 재벌기업들에서 연수명목으로 일본에 보내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문제도 그렇거니와 70만 재일교포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아울러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쓰라린 역사를 경험한 바 있다. 일제는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이른바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대대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실업, 반실업으로 내몰았다. 그리고는 수많은 한국사람들을 일본으로 송출시켜 차별노동을 강요했다. 1차대전 당시 전쟁특수로 일손이 모자란 일본자본이 바로 그러한 송출과정의 공급자요, 수요자였다. 이들이 지금까지도 뿌리깊은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일본 재일교포의 시원이 되었다.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학살의 구조적인 배경도 바로 이러한 차별노동, 인종차별로부터 비롯되었다. 또한 2차대전 전후로도 강제징용, 정신대 형태로 계속 송출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에 불법체류자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의 하나다. 일본이 한국에 직접투자한 자본의 부피 만큼 한국노동자들의 이동대열도 많아졌다. 지금도 일본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두번째로 많은 불법체류자를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 하에는 강제징용 형태로 인력을 송출했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뿐이다.

지금 한국정부는 노동자 수출국가로서 세계 각국에서 그들에 대해 공존을 위한 정책을 취해 나가도록 요구해야 할 처지다. 또한, 그것이 세계각국에 퍼져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그에 앞서 우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들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일 것이다. 지금 한국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정책은 스스로의 처지를 외면하고 부당하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정책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한국 노동시장구조의 양극화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노동력의

전반적인 고임금, 고기능, 고학력화와 기업들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전략에 따른 비정규고용의 확대와 고용구조의 차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력 수급구조의 불균형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신규노동력의 공급이 점차 감소하고, 향후 전자, 조선 등 생산직의 인력부족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사양산업의 해외진출에 이어 중화학공업의 잇따른 해외진출로 인해 현지법인을 통한 외국인력의 유입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 95년 현재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국내 상용노동자의 1%(10만명)를 넘어섰다. 노동시장구조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유럽의 경우(5%~8%)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단위 : 명, %)

취업 및 기술연수				불법취업 *4	총 계
합법취업 *1	해외투자등 *2	중기협 *3	소계		
5,265 (6.4)	9,512 (11.6)	18,816 (23.0)	33,593 (41.0)	48,231 (59.8)	81,824 (100)

주) 자료: 95.2.13 노동부장관 기자회견 자료 (94.12.31 현재)

*1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인력으로서 취업

*2 해외투자 등 해외진출기업의 현지고용인력의 기능향상을 위한 연수자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체에 허용된 연수생

*4 당초 관공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현장단순인력으로 취업하거나 연수생중 무단이탈자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무분별, 무책임한 외국인력의 대량 유입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 등의 외국인력 정책이 법률적 근거가 있다기 보다 업무지시에 해당되는 법무부장관의 훈령(1991.10.26)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연수생제도'를 빌미로 실제로는 근로자인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차별정책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어글리 코리안'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연수생을 더욱 확대수입하고 있을 뿐 책임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처럼 불합리한 연수제도 하에서 양산된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제는 한국사회도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동등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96년부터 기능실습생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고용허가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관련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도 여전히 연수제도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고 있거나 낡은 로테이션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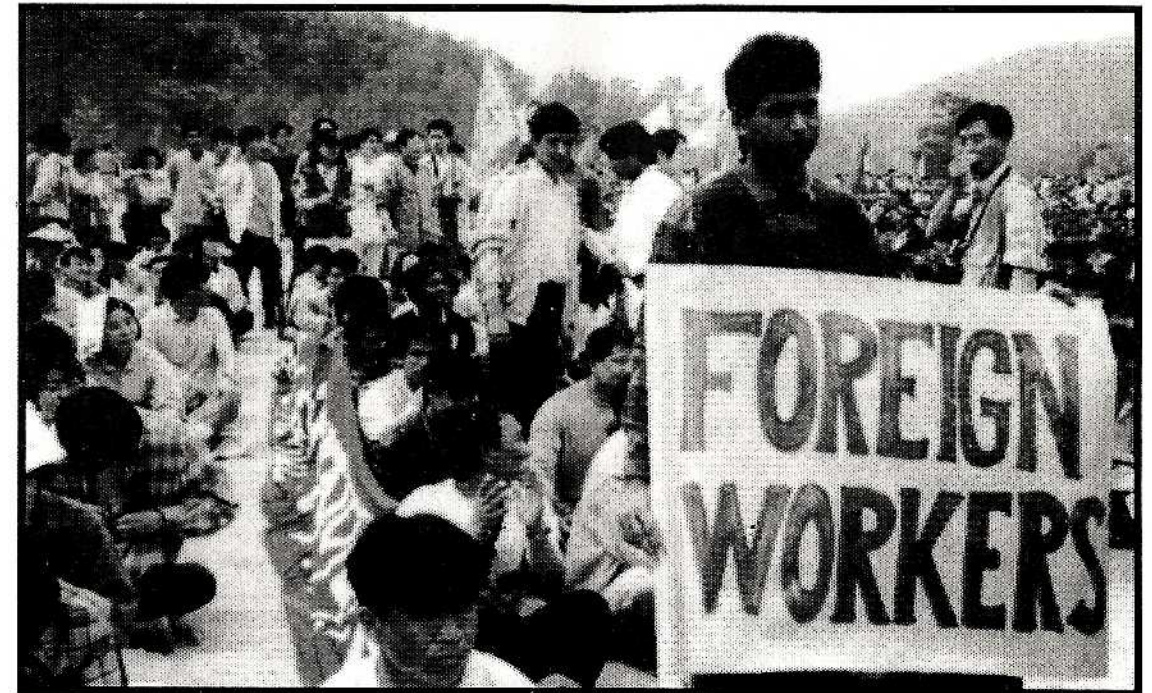
특히, 이들 제도 개선방안은 현대판노예제라 불리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 등 불합리한 정책하에서 양산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허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과독 광부들의 사례도 있고, 이미 한국 정부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5차례의 단속유보조치를 통해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그들의 합법화, 재취업보장 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무분별하게 추가로 신규 외국인력을 불러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불법체류노동자들을 사면하여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은 채권자요, 손님으로서 왔다가 불합리한 제도 하에서 불법체류를 강요당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도 한국정부는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특히, 이 문제는 향후에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려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형적인 연수제도 하에서 양산된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사면과 합법화를 단행하는가, 아니면 단속을 강화하는가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기조가 개선되는가 현행대로 유지되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로 외국인노동자를 들여오기 이전에 기존 불법체류 노동자의 권리부터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련 법규, 조약〉

-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
- 2) ILO조약 제111호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에 대한 조약)
인종, 피부색,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 3) ILO조약 제97호 (이주노동자에 관한 조약)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에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인 입국이 인정되는 자 포함)에 대해 보수·근로시간·휴가·고용을 위한 최저연령·여성 및 연소자 노동·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 및 단체교섭의 이익 향유·주거시설·사회보장을 합법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할 것
- 4) ILO 조약 제66호 (이주 노동자의 모집, 직업소개 및 근로조건에 관한 조약)
외국인 근로자의 모집과 수입 등에 대해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인 직업소개를 해야 한다.
- 5) ILO조약 제143호 (불법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처우균등의 촉진에 관한 조약)
불법취업을 위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주 노동자 대책에 대해 해당 회원국 노·사가 협의하며, 불법 이주 노동자의 과거 근로에 따른 권리·보수·사회보장·기타 급여를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동등하게 보장해야한다.

〈판례〉

- 1) 실습생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86다카 2920호, 1987.6.9)
- 2)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그 외국인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93.11.26 서울고법 93구16774 필리핀인 아키노 사건, 93.12.3 서울고법 93구19995 중국교포 정경홍씨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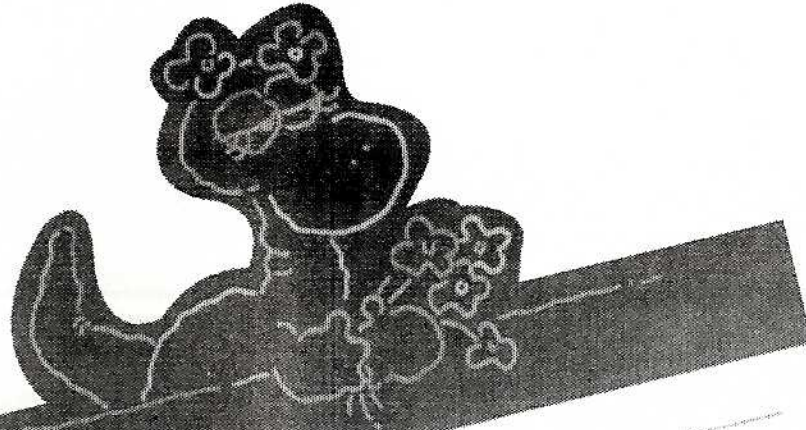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 - 함께 가야 할 동반자

가진것은 나누어야지요.

그동안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분들 ... 고맙습니다.

김정관행, 김은기, 김정연, 김준순, 김중희, 노미선, 박노녀, 박덕준, 박모철, 박성용, 박영숙, 박영자, 임미선, 오희문, 우명섭, 이금순, 이애순, 이종인, 임여장, 정자환, 조용익, 최윤, 최진호, 최홍근



누나 보세요
 오늘 저는 건강한 몸으로 네팔의 집에 앉아서 누나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누나가 저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던 것에 대해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손을 다쳤을 때 누나는 만사를 제치고 제 일에 매달려 제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덕분에 생명이 위태롭던 아버지도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고 지금은 많이 건강해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한국땅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요.
 다행히도 제 손가락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회복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같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친구들을 예전에 저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누나를 통해서 우리들도 서로
 돕는 마음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녕히. 건강하세요.
 가누 라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프레 라즈 반다리

저는 일자리를 찾아 멀리 먼 한국까지 와 있는 네팔인입니다. 한국의 대체적인 이미지는 좋은 편입니다. 반듯한 건물과 거리, 넘치는 물자, 더구나 시골구석에 사는 사람들까지 문명의 혜택을 고루 받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점차 지내면서 두루 살펴보니 그 상태가 별로 고르지 못한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가진 지나친 편견은 외국인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몇해전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 애매한 한국인들이 많이 죽고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미국사회의 인종편견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인 여러분은 전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적어도 인종편견에 대해서 만큼은 미국을 능가합니다.

저는 다른 네팔친구와 같이 원미동에 있는 한 회사에서 일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무척 힘들었지만 한푼두푼 모으는 재미에 그런 것 쪼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우리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이 한명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 간다는 것을 무척 싫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다른 내색없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누가 기숙사 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나가보니 그 사람이더군요. 술에 취해서 문을 열어 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우리는 그의 무례함에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밖에서 난리를 치다가 급기야는 부엌으로 난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개가지고 우리 먹살을 쥐고 흔들며 마구 때렸습니다. 맞붙어 싸우다가 해결이 안날 것 같아서 사장님댁으로 뛰어 갔습니다. 잠옷 바람으로 뛰어나온 사장님 내외분께 죄송했지만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기숙사에 와서야 그 사람의 난동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깐 한다는 말이, 건방진 네팔놈이 잠잠 재워달래는데 거절했다는 겁니다. 제까짓 것들이 뭘데 한국사람이 문을 열어 달라는데 안 열어 주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그 뒤로도 공장에서 만나게 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그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가지 일만 가지고 제가 엄살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서나 버스, 전철을 뒀을 때,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욕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버스나 전철이 만원일 때면 저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라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우리가 못 알아 듣는 줄 알고 큰소리로 떠드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욕하는 말은 더 잘 안합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들이니까 말입니다. 저는 욕심을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나친 우월감과 편견을 버리고 어울려 사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같이 알아 보자는 것입니다.